

◇전국 사암연합회

전국 99곳 활동...지역포교 '교두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자치단위를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양식이 형성되면서 지역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불교는 그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에 밀착해 있으며,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서의 역할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불교단체인 사암연합회의 결성은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내 사암의 참여 저조로 자리잡기에 부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신년특집 '지역불교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사암연합회 회장에 듣는다'를 기획, 구급 5일부터 20일까지 78개 사암연합회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결과, 사암연합회는 회원사암들의 권익보호와 친목도모, 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한 지역민과의 신뢰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 제주, 청주·청원, 충주, 고성, 가산·창원 등의 경우는 지역사회 문화적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해 사암연합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율 저조 중단 화합해야

사암연합회는 대외적으로는 지역민과의 친목도모(9.4%), 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한 신뢰감 형성에 기여(33.3%)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회원사암간의 화합과 권익보호(32.3%), 관청 상대 청구단일화의 역할(8.3%)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가운데 16개 사암연합회는 "회원사암들의 비협조로 특별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친목단체 이상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율은 56.6%로 비교적 저조했다. 절반에 가까운 사암들이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사암연합회 참여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중단간·사찰간의 불화(64.8%)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경기도의 한 사암연합회 회장은 "회장 소임을 놓고 중단간의 알력이 발생, 사실상 와해위기에 놓여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다. 한 지역에 같은 명칭의 사암연합회가 두 곳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조계종과 그의 중단이 같은 지역에서 별도의 모임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한 스님은 "각각의 사찰들은 잘 한다. 그렇지만 합치는 것은 아직 모자라다"고 꼬집고 "특정종단이 여러 종단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지

역불교 발전을 위한 대응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사암연합회의 1년간 지출규모는 대부분 6백만원~1천5백만원 수준이었지만, 활동력이 왕성한 곳은 5천만~6천만원에 이르렀다. 월 회비를 내고 있는 곳은 15곳이었으며 입원 및 회장이 연 지출에서 50~60%를 부담하고 있다. 행사가 없어 지출도 없다고 응답한 곳도 2곳이었다.

사암연합회는 대부분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노인 후원, 교도소 위문 등 어려움에 놓인 이웃을 돕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특성에 맞춰 군법당 지원(9곳), 불교방송 지방국 건립(강원불교연



◇사암연합회는 해당지역의 정서와 문화에 밀착해 있어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사암연합회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개최한 불교정책 토론회 모습.

주민 신뢰감 얻어...회원단합 기여 '한몫' 소년가장·노인·교도소 등 이웃돕기 주력

합회)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 4곳의 사암연합회가 북한동포 돕기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특히 강릉, 제주, 청주·청원, 충주, 고성사암연합회는 수목재, 영구대사 청주성 탈환일 기념법회, 충주중앙탑 탑돌이, 진주성 연등제 등 불교교유의 의식을 지역의 주요한 문화행사로 치르고 있어 불교가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인천은 모든 區에 연합회

90년 결성한 마산·창원불교연합회는 이듬해부터 매년 언론·예술·문학·사회봉사 등 네 부문의 시민불교문화상을 제정, 시행하고 있어 불교의 가치관으로 지역사회를 이끄는 적극적인 사례로 꼽힌다. 성남사암연합회는 올해 성남시에서 건립하는 남골당과 장례예식장 운영권을 확보, 사암연합회에서 운영키로 했다.

관청과 사암연합회와의 관계는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경남지역의 1곳씩에서 타종교를 믿는 공무원으로 인해 불평등한 대우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에 묶여 사찰의 신·중·개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곳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과거의 군림하는 관청의 모습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사암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암의 동향 유도, 모임의 정례화 등 지역내 사암들의 화합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따라 40%에 이르는 사암연합회가 회원 화합을 올해의 주요 사업 계획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중점사업 계획은 각 사암연합회의 특성에 맞게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인천불교연합회는 모든 구(區)에 사암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연구구불교연합회 남경구불교연합회를 출범시켰다. 올해 안에 8개구 모두에 사암연합회를 창립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각 구별 사암연합회 활동이 정착되면 종합불교회관을 건립한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있다. 인천불교연합회

회장 도해스님(능해정사 주지)은 "구단위 연합회 구성은 지역정서에 기반한 현장포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성 7만신위 위령재(진주), 경기불교사암연합회 결성 추진(성남), 시민불교대학 개설(거제), 1사찰 1복지시설 운영(은평, 속초), 종합복지관 건립(동해), 불교방송 지방국 건립(대전, 강원), 불교문화관 건립(부산 남·수영, 대전, 조계종인

친목단체 포함 120여곳 결성

천사암연, 공주), 지역불교연관 발행(성북) 등의 사업이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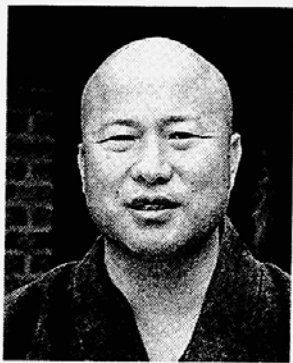
전국 244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사암연합회가 구성된 곳은 120여곳. 이 가운데서도 사실상 활동을 못해 연력이 두절된 곳이 많았다고 밝혔다. [도표 참조] 사암연합회의 창립은 8년 이후 지방자치제도 도입이 본격 논의되던 시기와 일치한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적절한 포교·대사회활동 단위로 기초자치단체와 결맞는 조직이 요청됐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 사암연합회 구성율은 40.5% 수준에 머물러 기존 사암연합회의 활성화와 함께 미구성 사암련의 구성이 과제로 대두됐다.

정리=정성운 기자

사암연합회	회장	연락처
서울 강동사암연합회	지족·장동포교원	(02)482-7244
강북불교연합회	등관·도선사	(02)993-3161
관악사암연합회	종하·관음사	(02)582-8609
서울·경기 사암연합회	현근·조계사	(02)732-2115
노원불교사암연합회	학민·학림사	(02)932-1411
노원불교사암연합회	고담·공덕사	(02)936-5263
성동사암연합회	법경·봉인정사	(02)462-1339
성북구사암연합회	준원·경국사	(02)914-5447
은평사암연합회	성운·삼전사	(02)359-7766
부천시사암연합회	성민·유주사	(051)971-0042
금정구사암연합회	계진·국정사	(051)517-5003
기장군사암연합회	정일·용공사	(051)722-7744
기장군사암연합회	원각·연동사	(051)721-4162
남·수영사암연합회	지원·문수사	(051)624-3754
동구사암연합회	경남·구봉사	(051)468-4937
동구사암연합회	도문·도림사	(051)313-5948
북구·사상구사암연합회	종하·봉곡사	(051)552-1283
부산지구사암연합회	지연·부림사	(051)501-0049
사하구사암연합회	종원·정원사	(051)205-9302
서구사암연합회	보관·보타사	(051)254-0546
부산사암연합회	성도·불교회관	(051)867-0501
연제구사암연합회	원공·중수사	(051)758-6022
영도구사암연합회	덕진·대흥사	(051)416-4605
진주사암연합회	해춘·김포사	(051)803-0188
해운대구사암연합회	학림·도성암	(051)743-7623
경남 거제불교연합회	원정·수도암	(053)681-3908
거제불교연합회	주원·거제포교당	(053)981-2093
고성불교연합회	지성·옥천사	(053)672-0100
김해불교연합회	무애·천불사	(052)222-8323
남해사암연합회	동운·보림사	(054)622-6500
마산·창원불교연합회	경호·원각사	(055)413-5593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혜봉·용정사	(052)533-1196
사천불교사암연합회	백산·포종사	(053)343-3450
진주불교사암연합회	무학·포종사	(053)341-4394
진해불교사암연합회	상운·중암사	(053)422-5538
통영불교사암연합회	정운·인왕사	(053)333-2295
통영불교사암연합회	법봉·안수암	(055)433-5723
함안불교사암연합회	지정·봉암사	(055)87-2023
대구시암연합회	인영·관음사	(053)421-2963
경산시암연합회	혜운·해광사	(053)815-0341
달성시암연합회	인호·정암사	(053)614-7911
성주군사암연합회	지산·관음사	(054)933-2176
포항·영일남부사암연합회	한주·북림사	(056)422-8294
상주군사암연합회	만성·죽림암	(052)333-2588
안동군사암연합회	철우·봉암사	(0571)533-4837
안동군사암연합회	법의·대곡사	(0576)862-4222
외선군계동사암연합회	단성·주월사	(0576)333-6638
공주불교사암연합회	상명·상명사	(062)263-7096
공주불교사암연합회	보현·석운사	(067)261-1422
남원시사암연합회	도반·심상사	(0671)334-3031
남원시사암연합회	수진·용화사	(0684)181-2683
여수연천사암연합회	지만·충곡사	(0662)685-5633
전북 군산시사암연합회	재운·관음사	(063)411-0198
전북불교연합회	지공·금산사	(0658)548-4441
익산불교사암연합회	지공·금산사	(063)862-6394
익산불교사암연합회	도학·교유회관	(062)934-7859
인천불교연합회	성진·부곡포교당	(062)519-5551
조계종인사암연합회	성진·부곡포교당	(062)576-9741
경기 가평사암연합회	무풍·청호사	(033)674-0705
경기 고양시사암연합회	홍선·용화사	(034)622-8387
남양주·구리사암연합회	법공·봉선사	(0346)355-5974
동두천시사암연합회	정현·원인사	(0351)865-4120
부평불교연합회	종학·관음정사	(032)801-8800
부평불교연합회	영남·석운사	(032)263-3575
상주시사암연합회	성공·무심정사	(0342)754-4661
수원시사암연합회	성공·수원포교당	(031)255-2692
안산시사암연합회	진만·선정사	(0345)409-8080
안산시사암연합회	도학·청암사	(034)772-7777
여주군사암연합회	명성·용화사	(0337)82-0631
이천시사암연합회	이승·이평포교당	(0351)875-6214
이천시사암연합회	혜봉·용암사	(0336)334-5728
파주시사암연합회	효림·보림사	(0348)942-7701
평택시군불교연합회	선수·수도사	(0333)382-3169
대전불교사암연합회	연수·용문사	(042)585-6803
조계종대전승가회	현수·용문사	(042)585-6803
대전비구니정원회	성숙·회전사	(042)271-8321
충남 공주시사암연합회	법회·남가법당	(0416)841-7979
충남시사암연합회	법회·지광암	(0461)322-5629
부여군사암연합회	안정·미암사	(0463)321-1187
서산시사암연합회	지만·서광사	(0455)64-2001
영양·아산시사암연합회	혜민·인취사	(0418)422-6441
연기군불교사암연합회	정하·용화사	(0415)864-7000
예산군사암연합회	지원·향원사	(0458)35-3556
충남 공주시사암연합회	송조·보광사	(0417)551-8487
충남 공주시사암연합회	송조·보광사	(0454)43-2654
충남 공주시사암연합회	혜봉·법주사	(0433)43-3615
충남 공주시사암연합회	혜봉·연정사	(043)47-6835
충주·청원불교연합회	이두·관음사	(0431)56-6254
충주사암연합회	원봉·보원사	(0431)59-4926
충주사암연합회	혜성·동가법사	(0441)852-0548
경원시사암연합회	혜운·법광사	(0391)647-9450
경원시사암연합회	원광·삼화사	(0394)34-7661
강원불교연합회	도후·신홍사	(0392)636-7044
강원불교연합회	시암·강원사	(0395)53-1567
속초사암연합회	도후·신홍사	(0392)636-7044
속초사암연합회	삼지·신홍사	(0395)44-8100
제천시사암연합회	법담·법정사	(0363)411-6260
제천시사암연합회	혜운·죽암사	(064)55-3131
제주불교총연합회	종원·보현사	(064)53-0895

인사부

서울 은평사암련회장 성운스님



"지금은 지방분권화 시대입니다. 중앙집중적인 포교방법으로는 지방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불교도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역정서 부응 자비실천해야 불교발전"

서울은평구 사암련회 회장 성운스님(삼천사 주지)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정서와 요구에 부응하는 불교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운스님은 지역 사암연합회가 있어야 할 이유를 매우 현실적인 면에서

찾는다. "관청과의 대화에서 지역발전의 공헌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지역공헌이 없는 가운데 사찰 진입로를 넓히거나 포장하려 해도 무시당 버리게 일수다. 존재의미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자비실천을 하자는 것이다. "지

역을 위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찰들로서는 업무를 내기조차 어려운 일도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

사암연합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운영사례로 꼽히는 은평구 사암연합회. 관내 1백여 사암 가운데 50여 사암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80년

성운스님의 발의로 결성됐다.

"수행한 것만큼 돌려주자. 물질적인 정진이면 모두 지역사회에 즉시 회향해야 한다. 그래야 불교가 산다"고 주위 스님들에게 호소했다. 조계종단 고집하지도 않았다. 무당도 받아들였다. 일부 사찰의 망설임도 있었지만 '부처

불교발전"

님도 외도를 받아들여 제자로 삼지 않았느냐'며 설득했다.

은평구 사암연합회는 이제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 송년·신년법회, 6월 호국영령 추모 및 은평구인 기원법회를 구성하고 합동으로 불행한다. 매년 20~30명의 공무원자녀

장학금지급은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은평경찰서와 서부경찰서 경순활동도 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스님들을 구성자문위 치안자문위 등 각종 자문위원회에 참여시켜 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매일 한 차례 릴레이법회는 회원 사찰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한다. 법회 후에는 공양과 함께 각 사찰의 문제, 지역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은평사암련연합회가 올해 중점을 두어 추진할 사업은 '1사찰 1복지시설 운영'.

"회원 사찰마다 여건에 맞는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회관 등 주민복지시설을 1개 이상씩 운영해 하는 것입니다. 사찰이 그 지역의 정신적·문화적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원리이지요."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8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2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감사

1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당론	· 무진장 스님(문태학학장) · 권기종(동국대학교수) · 혜인스님(동국대학교수) · 윤영수(동국대학교수) · 종석스님(승가대학교수) · 한정심 박사(상학원장)
	· 2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반야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불교 사회 복지론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장소	비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97년 12월 20일~ 98년 1월 31일 입학료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6시 불교회관 및 동산법당	통신반은 지방 거주자나 출석 수량이 어려운자만 가능

4. 입학일시

1998년 2월 7일(토) 오후 6시(충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 732-1206~8 FAX : 732-1207
(우:110-170 서울 중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전빌리 4층)
○ 서울 : 보현각(조계사암)(733-0333) ○ 부산 : 불서 보급사(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425-4097) ○ 대전 : 보문서점(257-0161)
○ 광주 : 불일서점(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55-2203)

* 특전사항 : ● 상과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4년	■주간 ■야간 ■통신	· 고등학교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급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 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체추천자.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 ■통신		
중국어과	2년	■주간 ■야간		
불교미술 (문화제과)	2년	■주간		
등양화 (禪畫)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		
등양 풍수과	2년	■야간		

2. 학교연혁

- 1989.7 학교설립준비
-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 90.8 불교학부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1.3 전문부 주간 야간2년제 개설
- 91.8 불교학부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 93.8 불교학부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 94.5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 95.8 중국·남경 총리대학과 불교제정
- 95.11 불교학부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 96.11 불교학부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
-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예정
-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 98.2 동양화선화과 등양 풍수과 개설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8년 1월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과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과과로 문의바람 (511-2026-8)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